

주일가정예배

[맥추감사주일]

2023년 7월 2일 주일예배

인도: 가족 대표

기 원 인도자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데
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
축하리이다” (시145:9-10)

독생자를 보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
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맥추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
름진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감
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
어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한량 없는 은혜로 채워주
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196장 다같이

1.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2.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3.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4.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 멘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마가복음 10장 35~40절 인도자

35.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6.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 여짜오되 주의 영광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3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39.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40.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설 교 『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 인도자

기 도 설교자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광 고 】

1. 소유하지 않고 소통하며 나누는 7월이 되게 하옵소서.
2. 교회학교 여름사역과 청년 단기선교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3. 담임목사님 안식월 동안 평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4. 헌금안내 : 기업은행 022-046724-04-01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중앙교회
※ 이름과 헌금종류를 적어 송금 예) “이름+감사” / “이름+주일” / “이름+십일”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마가복음 10:35-40

이승윤 목사

오늘 본문의 대화는 '십자가 사역' 직전에 발생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왕으로 오실 때, 우리를 잊지 마시고, 주의 좌우편에 앉혀 주십시오"라고 구했습니다. 예수님과 고생했던 시간들을 기억하시고 한몫 챙겨 달라는 의미입니다.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이하 한목협)는 "당신은 종교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으로 약 25년간 추이를 조사했습니다. 1998년부터 2022년까지, 종교인의 비율은 감소했고 개신교도 약 5% 이상 줄었는데, 2021~2022년 사이에는 약 13%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있었던 탈종교, 탈기독교 현상이 최근 도드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단'과 '가나안 성도'들의 답변은 불분명합니다. '한목협'은 '이단'과 '가나안 성도'의 인원을 전체 개신교 인원 771만 명의 35%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의 1/3입니다. ▶ 교회는 시대에 따라 다양하고 새로운 것들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천 년 전 초대교회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2008년 한완상 교수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예수 없는 예수 교회』. 초대교회는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부흥하지 않았습니다. 부흥이나 교세 확장, 충성된 교인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유일한 목표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복음'을 영혼에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 사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제자들의 요구는 처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먼저 요구했습니다. 그 이후 야고보와 요한도 동일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대화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본문 대화의 직전에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세 번째 예고'가 나옵니다. 즉, 이 대화는 '세 번째 예고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주님은 문제 해결, 물질 축복, 질병 치유, 자녀 형통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상은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보상의 신앙'은 주님의 잔,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무력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도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라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전부 부정되었습니다(마 26:56). ▶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순수해 집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 신앙은 민낯이 드러납니다. 예배, 기도, 찬양, 헌금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물으셨을 때 무엇을 달라고 구하시겠습니까? ▶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날 부끄러웠던 제자들이 변화되었다고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달라졌습니다(행 5:31).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지 '권능'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권능'에 머물면 우리의 마음은 기적, 이사, 신비 체험, 문제 해결 같은 '보상'에만 머물립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요 14:26). 우리는 성령을 통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령을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때에 오직 성령을 구하셔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충만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사랑 받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